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도 줄어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39개

고용부, 6월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내국인 제조업 가입 2.1만명 ↓
건설업은 23개월째 감소세
청년·40대 고용 감소 지속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감소로 전환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도 0.39개로 2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1000명(1.2%) 증가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지만,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도 감소로 전환했다. 제조업 전체 가입자 수는 1000명 감소했다. 그간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감소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가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가입자 수는 증가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내국인이 2만1000명 감소하고 외국인은 2만명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가입자가 줄었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 감소폭도 올해 3월 1만7000명, 4월 1만4000명, 5월 1만6000명에서 지난달 2만1000명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제조업분야별로는 자동차·기타운송장비·식품·의약품 부문 가입자는 늘었지만, 섬유·금속가공·기계장비·고무플라스틱·전기장비 부문은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의 경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는데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수출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세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채용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보니 실제 고용이 어려운 여건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부와 등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기업들의 구인이 움츠러들었다는 설명이다.

천 과장은 “제조업 업종별로 두루 살펴보면 지금 (가입이)증가하고 있는 산업들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감소하는 산업들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황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 가입자도 지난달 1만9000명 줄면서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 29세 이하 청년층과 ‘경제허리’인 40대 가입자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29세 이하는 전년동월 대비 9만3000명 감소하며 34개월째, 40대 가입자는 3만4000명 줄면서 20개월째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8만6000명 증가했고, 50대는 4만9000

명, 30대는 7만2000명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9로 1년 전(0.49)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1999년 5월 0.2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11.2%) 줄었지만, 신규 구직인원은 38만7000명으로 4만1000명(11.9%) 증가했다.

천 과장은 “구인배수는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 포함하고 있어 전체 노동시장 수급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업종별로 제조업 구인이 약 7000명 정도 감소했고, 도·소매, 건설업 중심으로 구인이 감소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2000명)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4000명으로 5.0%,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전력망 갈등 해법 찾는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전력이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해법을 국민의 시각에서 모색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7월 14일 ~ 8월 14일까지로,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안을 넘어,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 제도적 한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전력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 도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급 성장과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발, 인허가 지연, 이해관

계자 갈등 등으로 인해 수년씩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전력계통 불안정과 산업 투자 차질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전은 이 같은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기술혁신 ▲수용성 향상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제안된 아이디어 중 우수작 10건을 선정해 총 7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 원, 최우수상 2명 각 100만 원, 우수상 2명 각 50만 원, 장려상 5명에게는 각 20만 원이 주어진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공모는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이 될 국가기간 전력망을 국민과 함께 설계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행복미밥차’, 2만명에 아침밥 전했다

SNS 이벤트로 젊은층 참여 유도

농협이 운영하는 ‘행복미(미)밥차’가 전국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 세한대를 시작으로 최근 ‘KLPGA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까지 총 46회를 운행했다. 지금까지 2만여 명에게 아침밥 한 끼를 전하며 건강한 우리쌀과 ‘밥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행복미밥차는 농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밥차 캠페인이다. 14일 농협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는 이리고(전북 익산), 신일여고(대전), 신성여고(제주), 도계초(강원 삼척)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6회 운행했다.

또 대학 행사와 연계해 아침밥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주대, 협성대 등 대학 축제기간에 밥차를 운영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우리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효능을 전파했다. 또한 현장에서 SNS 이벤트를 병행하여 우리쌀 가공식품에 대한 대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지난 4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밥차를 운



농협 행복미밥차.

영하고 있다.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7월 ‘롯데오픈’,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밥차를 운영하며 선수와 캐디 등 대회 관계자들에게 우리쌀로 만든 영양밥샌드, 햄주먹밥, 유부초밥 등을 제공했다.

행복미밥차는 근로자도 찾아간다. 6월 부산시교육청, 7월 한화솔루션 여천 NCC를 찾는 등 출근길 곳곳에서 아침밥을 전달하며 근로자들의 든든한 하루를 도왔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천원의 아침밥’ 제공을 검토하는 가운데 농협도 적극 동참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식사를 챙기고 업무생산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 “청년농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간담회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개선안 논의
청년농 지원 확대·전문교육 강화 계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청년농업인·2030자문단과 만나 청년층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14일 세종 연서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팽스(주)에서 청년보좌역, 농식품부 2030자문단, 청년농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농업법인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2030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 공유 및 논의 ▲2030자문단 활동 격려 등을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인 청년들과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2030자문단과 현장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농식품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을 받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농정방향과 관련한 의견도 청취했다. 새 정부는 청년농이 농업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 등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2030자문단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립생태원, 구상나무 구별기술 특허 출원

생태보전 연구·복원 기대 커져

생김새가 유사해 육안 구별이 어려운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환경부산하국립생태원은구상나무

와분비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종동정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동정 진단 기술 개발은 ‘환경변화 대응 고산 취약 생태계의 적응 및 보전 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기술은 유사한 외형을 지닌 침엽수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고산 취약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산 취약 생태계는 고산 지역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반응하는 생태계를 뜻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조선, 안전확보·성장기반 함께 모색

산업부, 조선·기자재사와 상생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가 K-조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14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K-조선사·기자재사상생 간담회’를 열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조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

와 기자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수주물량으로 현장이 분주하지만, 폭염 속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무더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확대, 선상 휴게실 설치, 살수차 활용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기자재사들은 조선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기술 탑재이력(track record) 확보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